

■ 2025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심의 1차 심의총평(수필·평론·희곡)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심의(수필·평론·희곡)
- 회의일시 : 2025년 2월 7일(금), 16:00~16:40
-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용준, 라문숙, 이명원 심의위원

올해 새롭게 개편된 아르코 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사업은 종래의 작품집 발간지원 사업과는 달리 문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에 대한 작가를 집중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문학적 업적을 기반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작가로 활동하기 위한 문학현장에서의 입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그간의 활동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한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3명의 지원심사 예심위원들은 수필, 희곡, 평론 분야에서의 작가의 활동사항 및 수상경력, 그리고 향후 펼쳐질 문학적 작업의 현실적 성과 및 잠재적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수필, 희곡, 평론 분야는 큰 틀에서 보면 산문 분야이기는 하되 그 장르적 차이가 명백하고, 활동의 형태 및 문학계에 미치는 효과 역시 차별적인 측면이 있다. 수필은 일견 형식과 내용에 경계가 없다고 할 만큼 광범위한 주제를 아우르는 측면이 있기에 어떤 분야보다 뚜렷한 문학적 성취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희곡의 경우는 문학창작의 영역에도 속하지만 공연예술 분야의 연극적 실행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평론의 경우는 학계에서의 문학연구와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지니기도 하는 미적·학적 성격의 혼재라는 점이 고려될 만하다.

예심을 진행한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개별 장르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문학현장에서의 글쓰기의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2차에 걸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일차 심사에서는 지원대상작 전체를 각각의 심사위원들이 창작역량, 활동계획의 적절성,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진행했다.

이러한 1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술가의 집에 모여 2차 오프라인 심사를 진행했다. 2차 심사에서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 및 회피 사항을 확인한 후 개별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중심으로 각 장르의 2차 심의대상자들 선별하기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심의과정을 통해서 1차 심의위원들은 특히 각 장르의 문학적 성취 및 해당 장르가 내포하고 있는 특이성과 효과에 대해 논의했고, 서울과 지역, 중견과 신인, 현재까지의 문학적 성취와 잠재적 미래의 가능성 모두를 균형 있게 안배하면서 최종심사에 올릴 작가들을 결정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최종지원심사 대상작을 선정했다.

심의위원 일동